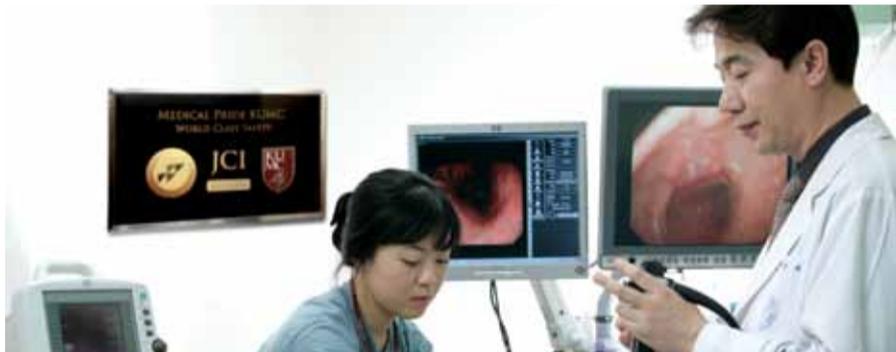




암을 이긴다 진행성 위암도 내시경으로 떼어낼 날 곧 온다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위암과 유방암을 담당하는 소화기센터와 유방센터가 특화돼 있다. 김열홍 암센터장은 “소화기센터는 위암 신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도입하며, 유방센터는 암환자 서포트팀을 구성해 여성 환자들이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 의료진은 의료 선진국에 수술법을 전해줄 만큼 명성을 쌓고 있다. 소화기센터 전훈재 교수가 내시경점막하박리술술을 하고 있다.

◆위 내시경 세계 최고 명의 10인에 선정

위암 내시경 점막절제술은 초기 위암 치료에 널리 쓰인다. 이 시술은 1990년대 중반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다. 배를 가르지 않고, 전극이 달린 내시경을 위에 밀어넣은 뒤 고주파 열을 쏘아 위벽에 붙어 있는 암조직을 세밀하게 떼어낸다. 최근에는 회복수술이 필요할 만큼 진행된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수술법을 연구하고 있다. 암 수술법 뿐 아니라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 의료진은 내시경을 이용해 암세포를 제거한 후 환부를 봉합하는 기구를 자체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소화기센터 전훈재 교수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술 건수는 2000건이 넘고, 성공률은 95% 이상이다. 이는 미국 및 유럽의 치료 성적을 뛰어넘는다. 전훈재 교수는 위 내시경 분야 세계 최고 명의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 교수는 “고려대학교병원은 내시경점막하박리술 성공률에 있어서 한번도 국내 정상을 놓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는 위 내시경

시술에 있어 독보적인 성과를 여럿 내놨다. 위정맥류를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식도 및 위점막하종양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데 성공했다.

2005년 고려대학교병원에 처음으로 복강경수술을 도입한 상부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는 전립선암이나 대장·직장암에 주로 사용되는 로봇수술로 위암을 치료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성수 교수는 “로봇수술을 하면 수술부위를 2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며 “위암복강경수술의 다년간의 경험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위암 로봇수술법을 빠르게 익혀 성공적인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학제 협진으로 체계적 치료 제공하는 ‘유방센터’

유방센터(센터장 배정원)는 환자가 한 곳에서 유방암 검사,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유방내분비외과 이은숙 교수, 종양혈액내과 박경화 교수, 영상 의학과 조규란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용 교수팀 등이 협진한다. 한국유방암학회장을 지낸 배정원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진료 전반을 이끈다. 유방센터의 ‘암환자 서포트팀’은 환자가 수술후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팔 움직임에 장애가 생긴 여성에게는 재활운동, 항암제 후유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약학·영양상담, 암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정신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암 치료가 끝나면 그동안 신경쓰지 못했던 비만관리, 부종치료, 심리상담 등을 병행해 암 재발을 막는 건강한 체질을 기르도록 돕는다. 유방센터 이은숙 교수는 “유방암 환자는 치료기간 중의 육체적 고통과 여성성을 잃었다는 정신적 고통을 모두 풀어줘야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 한 명당 5~7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 암 치료팀’도 운영한다. 유방암이 위, 폐, 췌장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 등을 시행한다. 유방센터는 지난 3월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을 받았다. [2면에 계속]

세계로 퍼져가는 인술의 빛 고려대학교병원 70년

고려대학교병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이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매우 척박한 의료환경이었던 지난 1941년에 개원하여 198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혜화병원으로 개칭되는 등 70년간 한국 의료기관의 살아있는 역사임을 자처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매진하여 왔다. 고려대학교병원의 첫발은 최상의 진료를 위해 달음질한 한국 의료기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의학교육 및 연구의 요람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2009년 8월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해 JCI 국제 의료기관인증증을 획득해 세계 속의 병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0년 11월 FERCAP 인증, 2011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증을 통해 최고의 병원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병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부터 개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병원은 고희(古稀)를 맞이한 성숙한 의료기관으로 한국 의료계를 넘어 세계 의학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금도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 70주년
Korea University Hospital 70th Anniversary

일 시 : 2011. 9. 1 (목)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병원 8층 대회의실

일 정 :

학술심포지움 13:00~16:00 (고려대학교병원 8층 대회의실)

「고려대학교병원의 과거, 현재, 미래」

Session 1 - 과거 13:00 - 13:45
고대병원의 지난 70년 김형규 교수

Session 2 - 현재 13:45 - 14:45
고대병원의 주요연구 현황 이민수 교수·인광호 교수

Session 3 - 미래 14:45 - 15:55
고대병원의 발전방향 ... 김철중 조선일보기자·선경 교수

기 념 식 16:30 (고려대학교병원 8층 대회의실)

만 찬 17:30 (의과대학 앞 잔디광장)

미국·유럽 의사들 “로봇수술 가르쳐 달라”

미국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이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전립선암과 직장암 로봇수술기법을 배운다. 이 병원 암센터 교수들은 세계적인 암병원에서 암 환자 수술을 직접 집도하기도 한다

[1면에 이어]



세계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의 로봇수술기법을 배운다. 고려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선한교수가 미국메이요클리닉의 요청으로 직장암로봇수술을 생중계하고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미국·유럽에 생중계

이 병원 비뇨기과 천준 교수의 국소성 전립선암 완전 제거율은 95% 이상이다. 이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미국 플로리다병원 세계로봇수술센터(GRI)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천준 교수는 GRI의 국제 자문위원이자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 3년 연속 국제적인 심포지엄에 핵심 패널로 참여했으며, 전 세계 비뇨기과 교수 및 전문의들에게 로봇 수술법을 교육하고 있다. 2009년 4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4회 세계로봇비뇨기과학술대회(WRUS)에 아시아 대표로 참석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천 교수의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미국·유럽·호주·아시아 등에 생중계됐다. 그는 또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의 체형에 맞춘 독창적인 전립선암 수술법

을 개발했다.

천준 교수는 "전립선암은 직장, 방광, 요도 등 주요 장기들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정교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로봇수술의 경험이 많고, 한국인의 체형적 특징에 맞는 수술법을 구사할 수 있는 의사에게 수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암 로봇수술법 ‘국제 표준’ 지정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대장·직장암 수술을 매년 350건씩 시행한다. 이 중 절반은 직장암 수술이다. 직장암 수술은 좁은 골반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술이다.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 등은 로봇을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서 직장암 조식을 정교하게 도려낸다.

김선한 교수는 세계 최고 암병원인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클리브랜드클리닉 등의 요청으로 직장암 로봇수술을 9차례 이상 중계해줬다. 미국 최고의 직장암 전문의들이 모니터를 보며 김 교수의 수술법을 익혔다.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를 개발한 인튜이티브사는 김 교수의 로봇 수술기법을 국제 표준으로 지정하고, 매뉴얼로 제작해 전 세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그는 싱가포르국립대 의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지에서 대장·직장암 환자의 로봇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의료진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한다. 김선한 교수는 "직장암 로봇수술은 아직 미국에서도 널리 적용하고 있지 않은 수술법"이라며 "고려대학교병원 환자들은 세계 최첨단 의술로 수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한 직장암 수술 역시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의 강점이다. 김진 교수는 "재발성 직장암은 수술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로봇을 이용해 미세한 부위까지 정확하게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을 4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예약 급하면 암 전용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위한 암환자 콜센터 운영.

매달 암환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숲치료·영양상담·운동치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가동.



암센터영양사가 암환자에게 식단교육을 하고있다.

보험설계사 김모(47, 서울 종로구)씨는 며칠째 계속되는 복통 때문에 걱정이 됐다. 평소 위장 장애가 심했고, 어머니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려대학교병원 암환자 전용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암센터 코디네이터는 바로 병원에 와서 진찰받도록

진행했다. 김씨는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1주일 뒤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고려대학교병원 김창덕 원장은 "우리 병원 암센터를 비롯해 국내 주요병원의 암 치료 성적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암환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암환자만을 위한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환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진료 일정을 잡아 준다.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를 찾아가면 암센터 코디네이터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받도록 지원한다. 코디네이터는 초진받을 클리닉에 접수해 당일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수술 일까지 잡은 다음 귀가하도록 끝까지 돕는다.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이외에도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항암·방사선치료, 영양관리, 운동, 통증관리 등을 주제로 매달 한 번씩 건강강좌를 열고, 1대1 교육도 진행한다. 또, 1년에 세 번씩 숲 치유 교실을 연다. 6박 7일간 산음국립자연휴양림에 머무르며 숲의 치유효과를 느끼도록 한다. 말기 암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도 진행한다. 말기암 환자의 간호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암환자 전용 콜센터 | 02) 920-6569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hj@chosun.com

조선일보 7월17일자 보도 발췌

폐암센터

〈클리닉 소개〉

우리나라 암사망률 1위...금연은 폐암사망 예방의 지름길

폐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기관으로 분홍갈색을 띠고 있다. 한쌍의 원추모양으로 양쪽기슴에 위치하고 있다. 우측폐는 3부분으로 되어있는 반면, 좌측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측폐에 비해 약간 작다. 코와 입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간 공기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된다. 폐는 기관지로부터 받은 공기 중에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기관지로 버리게 된다. 이처럼 생명유지에 필요불가불한 폐가 담배연기 등 암 유발인자에 의해 정상세포가 손상되면서 폐암이 발생하게 된다. 폐암이란,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진단 후 5년내에 86%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폐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중 성인 남자의 경우 32%, 성인 여성의 경우 25%에 이르며 점차 여성흡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폐암이 증가 추세에 있다. 흡연을 많이 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 구강암, 기도암, 식도암, 후두암, 신장암, 자궁암, 췌장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선량 흉부CT 를 이용한 조기 진단 프로그램

한국은 높은 흡연율과 더불어 폐암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서 폐암이 빠져있다.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조기검진을 확대하면 폐암의 완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된 국가폐암 검진연구(NLST)를 통해 최근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폐암 고위험

군(흡연 경력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15 pack-year)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촬영을 이용해 조기검진을 실시한 결과, 단순 흉부촬영을 실시한 군에 비해 폐암 사망률이 20%이상 전체 사망률도 7% 이상 줄었다는 보고를 했다. 하지만 아직 폐암에 대한 조기검진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폐암에 대한 조기검진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신 흉강경 등을 이용한 최소 침습법적 수술을 통한 폐암의 치료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로 완전히 절제해낼 경우는 완치가 가능하나 많은 경우 자각증상이 있을 때 까지 지연되었다가 발견되고, 이럴 경우 수술이 불가능해지며 완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의 폐암 수술은 광범위 절제를 통해 늑골을 한개 내외 잘라낸 뒤 수술을 해야하므로 통증도 크고, 회복과정도 길어지는 단점을 보였으나 최근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을 통해 약 1cm, 1cm, 4cm 크기의 3군데 피부절개를 통해 수술이 가능해졌다. 흉강경을 이용할 경우 늑골 자체를 손 댈 필요가 없어 통증

도 적고, 회복과정도 용이하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흉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흉막 유착이 심하거나, 출혈이 우려가 되는 등의 경우는 개흉술을 통해 수술을 해야 한다.

폐암 전문가 팀의 유기적, 효율적 팀워크로 환자에게 최적의 진단, 치료법을 제공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폐암센터는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다학제간의 폐암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한다. 진단, 검사,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각 분야에서 최신의 치료법과 검사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만들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적용하는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폐암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준화 된 폐암 진료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각 과의 전문의가 모여 협진 컨퍼런스를 통해 각 환자에게 맞춤형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렇듯 폐암센터의 장점은 폐암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위한 각 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의료진 간의 팀워크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폐암 센터는 사망률 1위의 치명적인 폐암을 정복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다학제적 접근을 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폐암센터 김광택 교수가 환자 진료를 실시 중이다.

폐암센터 김광택, 유세화, 인광호, 이상엽 교수 외래 | 02) 920-5436

말기 직장암 치료 및 생존률 최고(最高), 김진 교수

〈이부서 이사람〉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

재발성 직장암과 골반내 종양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호주의 시드니에 위치한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에서 병원에서 연수를 한 김진 교수는 김선환 교수와 함께 로봇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 최소침습수술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성 직장암의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직장암에 대한 수술이 증가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재발암의 환자도 늘어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재발성 직장암은 좁고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는 골반강에 발생

하는 특성상 수술이 복잡하고 수술시간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경험이 많은 외과의도 꺼려하는 수술 중 하나이다. 김진 교수는 “직장암은 아무리 수술이 잘되더라도 5-10%에서는 재발하게 되는데 그 중 실제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반내에서 진행되는 재발암의 생존율은 2년을 넘지 않는 반면,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동반될 경우 5년 생존율을 40%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병원의 대장항문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은 연간 500예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을 직장암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골반내 재발암에 대한 적극적 수술적인 치료가 많은 수의 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외래 | 02) 920-5401

고려대학교병원 70년, 그 시작을 돌아보며, 미래를 그려보다. I

〈스페셜 리포트 1〉

근대의학의 선구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1941년 경성여의전 부속병원 내과 회진 장면



1940년 경성여의전 병원현관

고려대학교병원의 역사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시작된다. 경성여의전은 1937년 당대 순천의 부호였던 우석 김중익 선생이 52계로 타계하며 기부했던 65만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김중익 선생은 장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때 의료의 한계와 무력함을 개탄하며 여자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을 유언으로 당부하였고, 덕분에 순수 민족자본으로 최초의 여자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었다. 경성여의전은

명륜동의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인수해 설립되었으며, 1928년 설립되어 운영되던 경성여자의학강습소의 학생들을 전원 받아들였다. 1941년 9월 1일에는 경성여의전과 같은 자리에 부속병원이 완성되어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바로 이 경성여의전 부속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1년 현재의 안암동 자리로 이전하기 전 혜화병원 시절까지 개조와 증축을 통해 자리잡게 되었다.

새로운 출발과 제 2부속병원

1957년 1월 25일 서울여자의과대학은 남녀공학으로 인가를 받으며 명칭도 수도의과대학으로 바뀌었고, 부속병원도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교사 증축과 함께 부속병원도 B동 1천1백93평을 증축하여 특실을 갖춘 병원이 되었다. 1958년 9월 25일에는 제2부속병원이 개원했다. 제2부속병원은 광화문 동아일보사 옆 2층 건물에 14개 병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방사선과, 치과 등 6개과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 직원 50여명의 규모였으며, 초대 원장으로 제1부속병원의 김희준 안과 과장이 겸임했다. 제2부속병원은 '중앙응급치료소' 전화 9000번을 홍보·운영하여 매일 150여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하였고, 환자를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의 임상실습장으로도 제공되기도했다. 특히, 당시에는 연탄가스 중독 환자들이 많았는데 고압산소실(Hyperbaric chamber)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며 치료에 힘쓰기도 했다. 1963년 11월 1일에는 목초육영회에 임대해 순수한 민간병원이 되었다가 5.16 군사정변 후 감찰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1965년 4월 13일 다시 제2부속병원으로 편입되었다.

고대의 가족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971년 12월,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병합되었다. 명륜동 교문에는 우석대학교의 현판이 내려지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새로운 현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병원 역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우석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74년 11월에는 신축병동이 건설되어, 11월 27일 개원식을 거행



1980년대 혜화병원 전경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학부속병원의 면모에 걸맞는 외관을 갖추게 됐다. 당시 비용으로 총 10억원이 투입된 결과였다. 1976년 우석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합병당시 약속 중의 하나였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명칭이 1976년 3월 1일 우석병원에서 고대병원으로 바뀌었다. 합병 당시 학교는 명칭이 바뀌었으나 병원은 설립자인 고 우석 김중익 선생을 기념하여 명칭을 우석병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학교당국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써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차례 바뀌었던 병원의 명칭은 드디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자리를 잡게됐다.

안암동 녹지캠퍼스 기공과 안암동 시대의 개막



199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축 이전



신축공사 중인 고려대학교병원

혜화병원과 함께 약 1천병상 규모의 고려대의료원이 시작되었다. 1991년 10월 8일 안암동 녹지캠퍼스에 고려대학교병원이 개원했다. 이로써 개원 50년만에 서울 종로구 명륜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녹지캠퍼스로 이전하게 됐다. 1987년 착공 4년 2개월만에 준공되었으며, 대지 2만 8천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옥탑 2층 규모의 부속병원과 의대, 의학도서관 등을 갖추고 내부시설과 기자재도 첨단장비 등을 구비, 한층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했다. 총 연건평 3,000평, 지하1층, 지상7층의 신축병동은 그 당시에는 드물게 알미늄 플레이트로 전면을 덮어 멀리서도 은백색으로 번쩍이는 신식건물이었으며, 내부에는 80개의 병실과 182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병원은 총 390병상 규모에 초

우석학원과 고려중앙학원의 병합 당시 김상협 총장은 몇 가지 의과대학 장기 발전에 대한 몇가지 약속을했다. 1972년 의대동창회 총회에서는 의대 및 신축병원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숭한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1983년 9월 1일 300병상 규모의 구로병원이, 1984년 4월 12일 50병상 규모의 여주병원이, 1985년 4월 15일 100병상 규모의 반월병원(현재의 안산병원)이 개원되어 당시 460병상이었던

[다음호에 계속]

병원소식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소리나무’ 연주회 개최



고려대학교병원(원장 김창덕)은 7월 27일 낮 12시에 3층 로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소리나무(SORINAMU)를 초청해 ‘사랑나눔 연주회’를 열었다. 소리나무는 ▲Valse No.20 ▲Tritsch-Tratsch Polka 등 총 10여 곡을 약 1시간에 걸쳐 연주했

으며, 굽은 장맛비 속에 전해진 아름다운 선율은 환자, 보호자 및 내원객 등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방학기간을 맞아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연주회를 실시해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한 소리나무는 바이올린 7명, 플루트 3명, 클라리넷 1명, 첼로 1명, 비올라 1명, 피아노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을 지휘한 소리나무를 대표해 김은하 지휘자는 “환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소리나무의 발전을 통해 더욱 감동 있는 봉사연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해 이번 연주회 취지를 설명했다.

고려대학교병원 ‘해외의료산업지원사업단’ 발족



고려대학교병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최근 ‘해외의료산업지원사업단’ (단장 조태형, 대외협력실장)을 발족해 보건 및 의료 산업 진출을 위한 업무를 본격 추진 하고있다. 해외의료산업지원사업단은 조태형 단장을 비롯해 선경 교수, 최재욱 교수, 안덕선 교수를 비롯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병원의 대형화가 심화되고 국내 의료시장이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병원은 ▲해외 의료산업 진출을 위한 신사업분야 진입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 ▲고려

대학교병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수익창출 모형 구축 ▲한국의료의 국제적 기술이전 등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즉, 의료외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해 의료기관의 시장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려대학교병원의 병원경영 노하우와 임상수준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고려대학교병원의 수익창출과 국위선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약, 욕창, 낙상 오류 제로(zero)! 간호사 예방교육 성료



간호부(부장 이은숙) 질·업무 향상위원회에서 투약, 욕창, 낙상 오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7월 28일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90여명의 병동 간호사들이 참석해 열린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낙상예방교육은 강주연 수간호사가, 투약오류예방교육은 김현옥 수간

호사가, 욕창교육은 서희원 상치장루전담간호사가 분담하여 각 분야별 지표분석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례발표,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오류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간호사는 “작은 부주의로 야기되는 각종 오류보고 사례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부 질·업무 향상위원회는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오류예방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친절리더와 함께, COOL한 여름 보내세요 ^^



고려대학교병원은 7월 27일 낮 12시 직원식당 입구에서 ‘시원하게 하(夏)! 하(夏)!하(夏)! 더위를 날려라~!!’ 이벤트를 펼쳐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병원내 친절문화 확산을 통해 고객행복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고려대학교병원 친절리더 4기가 이번에는 무더위를 ‘확

날려버릴’ 부채 500개를 통 크게 선물했다. 무더위와 폭우로 후덥지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부채를 받아든 교직원들은 연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친절리더팀이 마련한 이번 이벤트에 참여했다. 한편, 고려대학교병원 친절리더팀은 원내 친절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월 내원객 및 교직원을 위한 깜짝 이벤트와 지역 협력병원 방문친절교육 지원 사업 등을 실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외래환자 약국선택권 전 국민 서명운동’ 실시



고려대학교병원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상철)와 함께 7월 19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병원 3층 로비에서 ‘외래환자 약국선택권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손창성 의무부총장, 대한병원협회 정상철 회장, 이상석 상근 부회장, 김운수 서울시병원회장, 김

창덕 고려대 고려대학교병원장과 고려대학교병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서명운동은 몸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약제비가 병원 내에서보다 비싸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불편까지 겪어야 하는 이중고를 덜어주고자 기획됐다. 즉,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는 살리면서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부여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는 것이다.

외래친절향상위원회 불우이웃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서



간호부(부장 이은숙) 서비스 향상 위원회에서는 2011년 CS Boom up을 위한 5단계 실천운동 캠페인 중 제2단계 "Eye Contact"을 주제로 하여 7월부터 8월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4월에서 6월에 시행된 제1단계 "Hi Welcome"에 이어 반가운 눈 맞춤으로 전달되는 행복한 소통이라는 실

천 전략 아래 전개된 이번 캠페인은 눈맞춤 의사 소통을 통해 내·외부고객에게 편안하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고객 감동을 실현을 통해 병원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간호부 외래친절향상위원회에서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는 지난 겨울 하루 한 끼 절식으로 모은 성금으로 라파엘 클리닉에 기부했던 불우이웃돕기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커다란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정성을 모을 예정이다.

실패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친절리더 칼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사의 한 사업부는 일반 전구보다 수명이 50배나 긴 친환경 전구를 개발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다. 전구 개발을 맡았던 팀원들은 낙담했고,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해했다. 그런데 회장은 예상을 깨고 그 팀 모두에게 두둑한 상여금과 함께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새 상품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한 팀원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그들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수명이 긴 전구를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매진했다. 만약 회장이 실패의 책임을 묻기만 했다면 수명이 긴 전구의 개발은 백지화 되었을 것이다. 그 회장은 바로 '직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클수록, 그리고 사람을 아낄수록 성공하는 리더' 라고 말한 잭 웰치이다.

한편, 결혼 전문 기업인 더 낫의 공동설립자 칼리 로니는 리더십이 '아이를 키우는 것' 과 같다고 말했다. 실패를 거쳐 성장하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소매업체 마더네이처사는 간부사원을 채용할 때 특이한 조건을 한 가지 내걸었다. '지난번 직장 에서 뼈아픈 실수를 경험한 일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비슷한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매사 심사숙고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패에 대한 우대' 는 우량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면 빼 놓지 않고 말하는 성공 비결이다. 실패란 자신의 능력 한계까지 도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좌절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글 | 친절리더 55병동 김문숙 간호사

백만불짜리 설득

[문화소개]



저자 크리스 세인트 힐러 / 역자 황혜숙

인생의 모든 측면은 설득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설득은 성공의 핵심이다.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몇 가지 유형의 설득과 관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영업사원들이 써먹는 속임수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설득은 갈등이나 무관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 가지 아이디어나 행동방향을 선택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설득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과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설득이 고귀한 대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정치인, CEO, 변호사, 마케터들이 설득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해오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최고와 최악의 부류를 보았고,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관찰하고, 보디랭귀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어떤 유형을 발견했다.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설득기법을 27가지로 압축하여 독자들이 설득의 기술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스물일곱 가지 설득법은 어떤 설득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책을 읽다보면 몇 가지 설득능력이 서로 겹치거나 여러 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은 여러 설득능력이 함께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거나 서로의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만남에서 스물일곱 가지 설득법을 전부 다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물일곱 가지 방법에 익숙해질수록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설득기술을 연습할수록 능숙해져서 여러 기술이 대화의 자연스런 일부가 될 것이다. 스물일곱 가지 설득법은 가장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출처 | 원내기자 조규은(중합건강진단센터)

만화로 배우는 심장질환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의 '가슴이 아파요' III. 당뇨병

정우네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당뇨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운동부하검사와 같은 심장병 검사를 받지 않은 정우네 할머니는 사우나에서 무리한 나머지 병원응급실로 급히 이송되는데...



<심장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뇨관리 수치>

- △ **혈당 조절 목표**
 공복혈당 :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 140mg/dL 미만
 취침 전 혈당 : 100~140mg/dL
 당화혈색소 : 6.5% 미만
- △ **혈압조절** : 130/80mmHg
 엄격한 혈압 조절은 모든 심혈관계 질환이나 미세 혈관합병증 발병률을 24~56% 정도 줄여준다.
- △ **콜레스테롤 조절목표**
 총콜레스테롤 : 200/100mg/dL미만
 중성지방 : 150/100mg/dL미만
 좋은콜레스테롤 : 40mg/dL(남자), 50mg/dL(여자) 이상
 나쁜콜레스테롤 : 100mg/dL 미만

*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 목표 : 공복 혈당(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140mg/dL 미만)

*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무중상 심근 허혈(Silent Ischemia)의 빈도가 높다. 따라서 운동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바캉스 후 야외활동으로 인한 피부손상..어떻게 해야하나?

[의학정보]

휴가를 다녀온 후 과도한 야외활동으로 피부손상이 올 수 있다. 발강게 붓거나 까맣게 타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바캉스 증후군을 집에서 손쉽게 극복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발강게 붓고 지친 피부 vs 까맣게 탄 피부]

1) 발강게 붓고 지친 피부_ 일광(日光) 화상

여름철 물놀이나 여행 등의 야외활동으로 강한 햇빛을 받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피부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어 발강게 붓고 아프며 물집이 잡힌 경우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적절한 관리를 해야한다.

• 통증이 심하고 물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차가운

정제된 화장수나 수건으로 싼 얼음으로 냉찜질을 해주거나 샤워를 하는 것이 도움 된다.

• 화상 부위의 피부 껍질을 일부러 벗기는 것은 좋지 않다. 껍질을 벗기면 피부 손상으로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햇빛에 의한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2) 까맣게 탄 피부_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타고 기미와 주근깨가 생겨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고 기미와 주근깨가 생겨 잡티가 늘어나게 되는데 얼굴을 비롯한 피부에는 스팀타일을 10분정도 덮어둔 후 수분크림·에센스 등으로 집중보습케어를 해준다.

저녁 세안 후 영양크림과 로션을 섞어 3~5분간 마사지하면 되는데, 특히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눈가와 입가에는 화장솜에 아이크림이나 에센스를 듬뿍 발라 10분정도 얹어두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오이마사지, 수박껍질 흰 부분 팩, 감자팩 등이 효과가 있

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부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3) 바캉스로 지친 피부, 집에서 손쉽게 살리는 방법

- 휴가에서 돌아와 직장에 복귀할 때 바로 화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햇빛에 손상된 피부를 먼저 달래야 하기 때문이다.
-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 휴가 후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본격적인 화장에 앞서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고 냉장고에 화장수를 넣었다가 꺼내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 심한 경우라면 피부과를 찾아 스킨케어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에는 충분한 보습을 해줘야 한다. 보습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스로 주 2~3회 팩을 해주면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진다.
- 매일 저녁 세안 후 영양크림과 로션을 섞어 마사지해준다. 마사지는 3~5분 정도가 적당하다.
- 두터워진 각질을 없애라.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는 이를 빨리 제거해주어야 한다. 요즘은 다양한 각질 제거 스크럽 제품들이 판매되므로 이를 사용하면 된다. 단 바캉스를 다녀온 지 1주일 정도 지나서 각질제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광욕으로 예민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새로운 피부세포가 재생할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일광 화상이 생기고 난 후 피부 관리는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기본적으로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하루 7-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
피부과 변나리 피부관리사

“아니, 병원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병원생활 칼럼]



병실회진을 갔더니 입원환자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간단한 시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였는데 시술을 위해 아침을 굶은 데다 점심까지 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새 응급환자가 생겨 그 환자를 치료하느라 계속 늦어졌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간호사가 설명했지만 자신은 예약된 환자이니 예약된 시간에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검사를 하는데 순서가 있다. 수술은 중한 환자나 큰 수술을 받는 환자부터 먼저 하고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간단한 수술은 나중에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간단한 수술을 받는 환자는 하루 종일 굶은 채 저녁까지 기다리는 일도 생긴다. 그러다가 응급환자라도 생기면 본의 아니게 다음날로 수술이 연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날도 이미 계획돼 있는 중환자나 큰 수술부터 시작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일이다.

검사도 비슷하다. 검사는 외래환자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입원환자를 한다. 아침을 굶는 것은 같지만 외래환자는 검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다. 병 중에 작은 병은 없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은 다 급하고 중한 병이다. 그래서 다른 환자를 위해 참고 기다리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디지털화된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병원은 계획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인 병원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다. 과연 누가 먼저일까?

글 | 김형규 고려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함께하는 몸무게는 정상, 체지방 비율 높은 '마른비만'

[김신곤 교수SBS 건강칼럼]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가 SBS 라디오를 통해 들려주었던 짧고 재미있는 건강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SBS 정보센터' 를 통하시면 무료로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체지방의 비율이 높은 '마른 비만' 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은 지방량은 많은데도, 근육량이 적어서 체중으로만 보면 비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사적으로 더 나빠서' 당뇨병이나 이상지혈증, 고혈압 등을 불러 옵니다. 연세가 많은 경우 이런 마른 비만이 되기 쉬운데, 젊은 여성의 경우도 다이어트만 하고 운동을 안하면 마른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은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과 불규칙한 식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이때는 칼로리를 낮추는 식사가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였습니다.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진료예약 | 1577-0083, 외래 | 02)920-5421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 2011년 08월 22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928	류 호 상	화, 목	화, 목	간질환, 위장관질환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목	수	소아심장, 신생아	
	김 창 덕	수	월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 박 상 희	화, 수, 금	수	소아 소화기, 청소년질환	
	* 엄 순 호	월, 수, 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 이 광 철	월, 목	목	소아혈액종양, 대사질환	
	* 전 훈 재	화, 목, 금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 정 지 태	화, 금	월, 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 이 흥 식	월, 화, 목		담석, 담도암, 췌장염, 췌장암, 위장관질환		* 이 기 형	월, 목, 토	월, 수	소아내분비(저신장, 갑상선, 당뇨, 비만)목요일:2,4주만, 토요일:2째주만	
	* 진 윤 태	수, 금	화, 수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 양 기 영	월, 수	화, 금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 김 용 식	수	월,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 은 희	토	월, 목, 금	미숙아, 신생아 질환(토요일:4째주만)	
	* 김 보 라	월	수, 목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남 효 경	금, 토	화	소아내분비(토요일:1,3째주만)	
	김 진 동	월, 목	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일 반 의	수	수, 금	소아청소년질환	
	김 은 희	목	목	위장관질환		일 반 의	화, 목	화, 목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최 현 순	토	화	위장관질환	소아클리닉	박 상 희 (수 오후): 청소년, 소화기질환				
내과 3층 ☎6852	김 형 규	월, 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이 기 형 (2째주 화 오후): 소아비만, (수 오후): 소아내분비-저신장, 당뇨, 갑상선, 소아비만	장 기 영 (월 오후): 소아심장-심장초음파 검사			
	* 조 원 용	수, 금	월, 수	고혈압, 신장질환		은 희 (목 오후-격주): 소아신경성리	임 현 은 (수 오후-2,4주만): 소아신장질환			
	* 최 상 경	목	수, 목	고혈압, 신장질환		이 은 희 (목 오후-격주): 미숙아, 신생아클리닉				
	최 혜 민	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유방내분비외과 (유방센터) 2층 ☎6670	* 배 정 원	월, 목	화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암클리닉(월, 목:오전)
	조 은 정	토	화, 목	고혈압, 신장질환			* 이 은 속	수	월, 수	유방암 및 유방질환/유방암 성형클리닉(수:오후)
	이 재 권	화	금	고혈압, 신장질환			* 김 훈 업	화, 금	금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화:오전)
	김 민 자	수, 금	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 이 해 윤	목	수	유방 및 갑상선 질환
	* 손 장 옥	월, 목	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황 성 배	수	수	유방 및 갑상선 질환
	김 시 현	화	목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 조 운 애	월, 목	월, 목	사시클리닉, 약시
	윤 영 경	수, 금	수, 금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 김 효 명		화, 목	화, 목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박 용 용	화, 수, 목		빈혈, 자반증(망)클리닉	* 오 재 령	월, 수, 금		월, 화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후-레이저)자만		
* 지 중 대	목, 금	월, 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 서 영 권	수, 금		월, 화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 이 영 호	월, 화, 수	화, 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 강 수 연	금		화, 수	사시, 약시, 안성형		
내과 일반의	월-금	월-금	내과질환	양 선 모	수	월, 수	백내장, 각막, 근시교정			
내분비센터 3층 ☎5421	* 최 동 섭	화, 목, 금	목	내분비	일 반 의	화, 수, 금	화, 수, 금	안과 일반학		
	* 김 신 곤	월, 수	화, 수	내분비	가정의학과 2층 ☎5104	* 조 경 환	월, 수, 금	금	노인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 김 희 영	화, 수	월, 수	내분비		* 고 병 준	화, 수, 금	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 김 주 형	목	월, 목	내분비		김 양 현	화, 수, 목	수	비만, 건강증진, 해외신검, 건강상담	
	김 윤 정	월	금	내분비		김 민 지	월, 목, 금	월, 화, 목	금연, 비만, 건강증진	
	조 영 진	월	금	내분비		일 반 의	월-금	월-금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김 원 준	월, 목	화,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 이 민 수	월, 수, 금	수	우울증, 치매, 정신분열증	
	* 김 영 준	화, 금	화, 금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 김 린	화, 목	월, 화, 목	수면장애, 적응장애, 정신분열증	
	임 도 선	월-금	월	심혈관중재시술(월-금 8:30-10:30: 흉통 초진클리닉)		* 함 병 주	월, 화, 목	목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 박 상 원	수, 목	월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수요일은 초진만)		* 이 현 정	화, 수, 목	화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토-1,3주)	
* 홍 순 준	수, 금	수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	윤 호 경		금, 토	수, 목	일반정신의학		
* 박 성 미	화, 금, 토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토요일은 초진만-격주)	일 반 의	토	월, 수, 금				
최 중 일	월, 화, 금, 토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급사, 실신(월, 금: 8:15분, 토요일은 초진만)	정신과 2층 ☎5505	* 박 건 우	목	월, 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토:초진진료)		
* 안 철 민	월, 토	목, 금	혈: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금, 토: 대동맥, 경동맥, 말초혈관(토요일은 초진만)		* 김 병 조	월, 수, 목	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목요일:초진진료)		
* 박 재 형	화, 금	목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 유 성 욱	월, 화, 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		
박 지 은	수, 금	수, 금	소아부정맥		이 찬 념	수, 금, 토	목	신경과질환, 뇌졸중, 기억장애		
김 제 상	목	월, 화	심장질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장 재 흥	화	월, 화, 금	신경과질환,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김 예 민	금	화	심장질환, 협심증,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일 반 의	화	수, 금	신경과질환		
김 미 나	금	화	심장질환, 협심증,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 이 규 완	수	수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		
홍 부	월	월	홍부대동맥, 경동맥, 말초혈관		* 김 선 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이식혈관	화	화	말초혈관질환, 대동맥류, 경동맥류		* 김 영 태	화	월	탈자궁, 유전질환, 내시경수술		
특수클리닉	화	화	말초혈관질환, 대동맥류, 경동맥류		* 김 탁	월	화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호흡기 ☎6929	* 유 세 화	월, 수,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 송 재 윤	월, 금	수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 이 광 호	월, 수,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 안 기 훈	수, 목	목, 목	탈자궁, 일반산부인과		
	* 이 상 업	화, 금	월,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 이 상 훈	화, 금	목	부인암, 종양생식보존(암환자수정란, 난자, 난소동결&이식)		
	* 이 은 주	월, 화, 목, 금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김 민 우	토	화, 금	산과		
	* 이 승 현	토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산부인과클리닉: 이규완(월 오후, 수 오전), 김선행(월-금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김영태(월 오후, 화 오전), 김탁(월 오전, 화 오후), 송재윤(월-금 오전, 수 오후), 안기훈(목, 목 오후), 이상훈(화·금 오전, 목 오후), 김민우(화 오후, 금 오후)					
	김 광 택	화	목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피부과 2층 ☎5470	* 계 영 철	월, 화, 목, 금		건선, 탈모, 아토피, 레이저	
	* 선 경	목, 금	목	심장, 혈관외과, 인공심장		* 서 수 흥	수, 토	월, 수, 금	피부암, 백반증(토요일:셋째주만)	
	* 손 호 성	목	화	흉곽기형, 폐, 식도질환, 하지정맥류		최 은	월, 금, 토	화, 목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토요일:둘째주만)	
	* 정 재 승	목	화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일 반 의	토	월, 수, 금	일반피부과학(토요일:첫째, 넷째주만)	
	조 중 호	수	수	일반흉부질환		비뇨기과 2층 ☎5530	* 김 제 중	수, 금	수	남성과학, 불임
김 중 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 이 정 구			월, 목	월	배뇨장애, 요실금	
* 박 성 우	화	목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 천 준			화	화, 목	종양학, 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김 영 철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 강 성 구			화, 목	금	일반비뇨기과학	
* 서 성 욱	월, 수	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장 훈 아			금	화, 금	일반비뇨기과학	
유 영 동	수, 금	수, 금	간, 담도, 췌장질환	일 반 의			토	화, 금	일반비뇨기과학	
김 선 한	목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재활의학과 2층 ☎6854	* 권 희 규		월, 수, 금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 김 진	목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 강 윤 규		화	월, 목	통증, 관절염	
조 재 승	금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 이 상 현		목	화, 수	어깨통증, 척추디스크, 관절염	
백 세 진	수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 편 성 범		수, 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 연하(삼킴)장애	
박 관 태	화	목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 김 리 나	월	목, 금	스포츠의학, 족부, 족관절통, 관절통증		
유 윤 정	월, 목		소아외과, 탈장		류 병 주	금	월, 수	암환자재활, 심장재활, 장애평가		
채 인 정	목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경, 척추		일 반 의	화, 금	금	견관절통증, 경부통증, 요통		
* 이 순 혁	수, 금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급요전:1,3,5주(뇌성마비 및 보행장애, 족부변형) 2,4주(고관절이형증, 초음파클리닉)		치과 2층 ☎5423	* 권 중 진	월, 금	화	구강외과	
박 종 용	금	목	수부, 미세수술			* 권 영 규	월, 수	월, 수, 목	교정과	
* 한 승 범	월, 목	목	인공관절, 인공고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전 경 아	월, 화, 목	월, 목, 금	보존과	
* 박 중 훈	화	화	종양, 외상	최 연 조		월, 화, 목, 금	월, 화, 수, 목	보철과		
* 정 중 교	월, 금	금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	이 창 석		수, 금	수, 금	치주과		
* 박 시 영	수	월, 수	척추, 외상	김 예 진		월, 화, 수, 토	월, 수, 금	교정과(토요일 격주진료)		
* 이 대 희	화, 토	목	무릎, 스포츠의학	일 반 의		월-금	월-금			
서 중 근	화, 목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이비인후과 2층 ☎6851		* 이 상 학	월, 목	화	알레르기, 후각, 고성형, 부비동염, 비부비동 증양	
* 정 용 구	수, 목	화	뇌종양, 척추증양, 뇌혈관질환, 두통			* 김 태 훈	화, 금	화	고성형, 알레르기, 축농증수술, 비부비동 증양	
박 정 울	금	화	통증외과, 척추질환, 간질 및 운동장애			박 제 진	토	수, 목, 금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 조 태 형	월, 수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출기세포치료		* 정 학 현	목	월, 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 강 신 혁	화	목	뇌종양,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안면경련		장 지 원	월, 수	수, 금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학		
* 이 장 보	화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 정 광 윤	화, 목	목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		
박 동 혁	금	월, 수	뇌혈관질환,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부외상		* 백 승 국	수, 금	수	두경부암(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경부종물)		
안 성 대	금	수	척추질환, 두부외상		박 민 우	금	금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학		
박 철	월, 금		귀성형		일 반 의	월	화	일반이비인후과학(월요일:이과, 화요일:비과)		
* 안 덕 선	월	목	손저림증, 화학박피		이비인후과 클리닉	정 광 윤 (목 오전): 갑상선 종양 클리닉				
* 박 승 하	금	화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미용성형	김 태 훈 (화 중일):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						
* 이 병 일	월, 수	화	미용성형, 안면재건, 유방, 미세수술	장 지 원 (수 중일): 어지럼 클리닉						
정 순 일	화, 목	월-금	외상	영상의학과 3층 ☎5571		* 이 남 준	월, 수, 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일 반 의	화, 수, 목, 금	월-금	일반재건성형			* 김 윤 환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간암 및 복부 인터넷시술	
성형외과 3층 ☎5440	* 박 승 하	금	화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미용성형	* 조 성 범	월, 수, 금	월, 수, 금	간암 및 혈관 인터넷시술
	* 이 병 일	월, 수	화			미용성형, 안면재건, 유방, 미세수술	전 기 정	월	월	중양핵의학, 방사성핵종치료
	정 순 일	화, 목	월-금			외상	* 장 성 호	월, 목	월, 목	통증관리
	일 반 의	화, 수, 목, 금	월-금			일반재건성형	* 이 혜 원	수	화, 금	통증관리
	외국인진료센터 통합의학센터	* 안 덕 선	월			목	손저림증, 화학박피	* 박 지 용	화, 금	화, 금
		* 박 승 하	금		화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미용성형	민 삼 훈	수	수	통증관리
		* 이 병 일	월, 수		화	미용성형, 안면재건, 유방, 미세수술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정 순 일	화, 목		월-금	외상	이 성 재	화, 금	수, 목	심장건강, 뇌정신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안건강, 만성통증관리,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일 반 의	화, 수, 목, 금	월-금	일반재건성형					